

논문접수일 : 2012.04.05

심사일 : 2012.04.13

게재확정일 : 2012.04.26

##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과 인도 전통 문양 비교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Indian Traditional Patterns Found in Modern  
Fashion

**김 난 희**

강동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과 부교수

**Kim ran-hee**

Associate professor/Ph.D., Department of Beauty Coordination, Gangdong College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하여 작성하였으며 2011학년도 강동대학교 산학협력처 교원 산업체연수 지원에 의한 것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 1. 서론

### 2. 한국과 인도의 전통 문양

- 2.1. 전통 문양의 의미
- 2.2. 한국과 인도 전통 문양의 유형 및 상징성
- 2.3 한국과 인도 전통 문양의 비교

###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과 인도 전통 문양 형태 분석

- 3.1.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 전통 문양
- 3.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인도 전통 문양

## 4. 결론

## 참고문헌

## 논문요약

21세기 현대 패션에 있어서 세계 디자이너들은 아시아의 전통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으며, 패션의 소재로 전통 복식과 문양을 재구성하여 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과 박물관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과 인도의 17-19세기 전통 문양을 고찰하여 문양의 유형과 상징성을 비교 하였으며, 현대 패션은 2000년대 세계 4대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과 인도의 전통 문양을 재구성한 디자인 자료를 통해 비교 관찰 했다. 상징성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생활모습 등에 내재되어 있는 문양을 통해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으며, 두 나라 모두 사상적 배경은 자연과 인간이 복된 삶을 의미하는 문양을 사용하였다. 한국전통 직물 문양은 식물문양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동물문양을 통해 신분의 표시와 인간의 힘을 빌리고자 하였다. 인도전통 직물 문양은 자연을 인격화시켜 숭배하여 직물에 자연문양을 표현하였다. 현대 패션에 있어서는 한국 전통 문양을 재구성한 디자인 보다는 인도 전통문양을 재구성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꾸준한 관심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 전통 문양과 이미지 문화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확산 될 수 있도록 전통 이미지와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주제어

한국 전통 문양, 인도 전통 문양, 상징성

## Abstract

In the 21st modern Century's fashion, global designers have increasingly more interest in Asian tradition and are reconstructing and applying traditional dress and patterns as fashion materials. On the basis of the literature and materials from museum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aditional patterns for the Korea and for the 17th to 19th India to compare their types of symbols and compared design materials, which were reconstructions of Korean and Indian traditional patterns, in terms of modern fashion on the basis of four global collections for 2000. Symbols could be interpreted through patterns found in the nature, culture, and life styles of each country, and those patterns signifying a happy life of human beings and the nature were used for the ideological background in each country. Korean traditional fabrics had lots of plant patterns, along with animal patterns in pursuit of the symbol of the status and human power, while Indian traditional fabrics principally had patterns of nature, which is personified and worshiped in the country. For modern fashion, there were more reconstructions of Indian traditional patterns than those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s; it was found that the former have long attracted attention. Therefore, at this time when the Korean Waves (Hallyu) are getting more global atten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spread and reconstruct Korean traditional images and patterns into modern ones, with continuous attention to culture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s and images.

## Keyword

Korean traditional patterns, Indian traditional patterns, symbols

## 1. 서론

21세기 서구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패션에서도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듯 문화의 가치를 표현하는 디자인들이 나타났다. 패션에서 표현된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문화는 전통복식이나 색채에서 영감을 얻거나 전통문양을 현대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전통 문양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사회, 생활 모습 등을 반영하여 생겨난 것으로 문양에 따라 상징적 의미가 다르다.

본 연구의 전통 문양은 전통 문양에 관련된 전문서적, 선행 연구 논문 및 인터넷의 활용을 토대로 하였다. 시대는 직물이나 의복의 형태로 유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조선시대와 직물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발전한 인도의 17-19세기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 시기 나타난 문양들은 그 이전의 시대에도 나타났지만 그 시대에 맞게 변화 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한국과 인도의 전통 직물 문양 중에서는 기하문양, 동물문양, 식물문양, 자연문양을 중심으로 문양과 상징성을 알아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전통문양을 재구성하여 디자인 되어진 현대 패션은 2000-2006년 세계 4대 컬렉션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비교 나라로 인도를 선택한 이유는 인도는 고대 4대 문명과 불교문화의 발생지이며, 두 나라가 외래의 수많은 침입에도 불구하고 타 문화를 함께 수용하고 변용시켜 자국의 독자적인 창조성을 지닌 전통을 지켜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 2. 한국과 인도의 전통 문양

### 2.1. 전통 문양의 의미

인류는 고대부터 자연의 대상 뿐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다. 또한 이를 통해 인간의 내적 염원을 표현했으며, 미의식을 형상화했다.

사전적 의미로 문양이란 일반적으로 물건의 겉 부분에 여러 가지 형상이 어우러져 이룬 모양을 뜻하며, 우리말로 '무늬', 한자로는 '문양(文樣)' 혹은 '문양(紋樣)'이라고 표현한다. '문(文)'은 글자(書契, 사물을 표시하는 부호), 꾸밈(飾), 아름다움(美), 빛남(華), 아롱짐(斑), 빛깔(文彩) 등을 뜻한다. (문화포털, 2012).

인간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산 하천, 계곡을 비롯하여 해나 달, 구름, 별, 바람, 물, 바위 등과 선, 원, 삼각형이나 사각형 등의 여러 가지 모양에 의미를 두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에 이르기까지

언어가 부재하는 가운데서도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 상통하는 연상적인 표현을 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징적인 사고의 표현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문자가 형성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오랜 세월을 통해 그 시대마다 상징적인 사고의 산물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문양의 출발점인 것이다(김덕겸, 2001). 문양은 각 민족이나 나라마다 자연적, 역사적, 종교 등 환경에 따라 고유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도 그 나라의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는데 이를 전통 문양이라 한다. 전통 문양에는 자연에 대한 외경과 신령스러운 정감이 깃들여져 있고 이상세계의 동경, 행복의 기원 애정의 충만과 길상의 축원이 들이 담겨져 있으며, 그 속에는 장식 미와 더불어 민족 고유의 정서가 숨 쉬고 있다(허균, 1995). 즉 전통 문양은 인간의 감성 뿐 아니라 기원과 욕망을 정서적으로 표현하고 전달 해 주는 매개체 구실을 하는 상징성 조형물이라 볼 수 있다.

### 2.2. 한국과 인도 전통 문양의 유형 및 상징성

한국과 인도 전통 직물 문양의 유형을 크게 기하문양, 동물문양, 식물문양, 자연문양으로 분류하였다.

#### 2.2.1. 기하문양(幾何紋樣)

기하문양은 직선이나 곡선을 기본으로 하는 격자, 십자, 지그재그, 평행선 등으로 이루어지는 추상무늬로 둥근 것은 하늘의 상징이며, 네모진 것은 땅을 상징한다. 또한 자연물을 신성시하며 우주와 땅, 하늘 등에 의미를 부여하여 문양화 하였다. 한국과 인도 각 나라의 전통 기하문양 종류와 상징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1) 한국의 기하문양과 상징성

너문과 회문은 전시대에 걸쳐 사용된 기하학적인 연속무늬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음을 상징하고 불교에서는 우주의 원리인 무한성을 뜻한다(오근재, 2001). 거치문은 톱니형의 세모꼴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형태의 무늬로 인류발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기본적 장식요소이며, 권력이나 생명, 다산을 상징하고 있다(임영주, 1998). 팔괘문은 중국 상고 시대 복희씨가 지었다는 여덟 가지 패턴에 온갖 만물의 형상과 형태의 기본이 되는 일종의 상징부호(최혜정, 1989)로 하늘과 땅을 비롯하여 천지자연의 법칙을 본받아 생활에 실천한다면 인간의 흥망성쇠와 길흉화복 등이 자연의 도에 합치될 수 있다고 믿었다(허

균, 1995). 한국의 길상 문양인 기하문양은 우주를 상징하며 부귀와 행복을 염원하는 문양으로 자연 현상을 모티브로 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수의 염원은 윤희를 표현하여 무한성을 의미한다. 천지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문양에 담아내었다.

한국			인도		
문양	그림	상징성	문양	그림	상징성
뇌문		무시무종(無始無終), 길상	스와스티카		행운의 상징 오른쪽 꺾임-길상. 불상징-장례
귀갑문		우주의 상징, 장수, 운명	랑골리		건강, 행복 기원
고리급문		윤희, 장수, 진리의 무한성	링가와 요니		링가시바신의 최초형상 :영원불멸, 순수 요니변화하는 동적 여성적
팔괘문		상징부호 자연과의 일치. 행복과 복록(福祿)	나브라트나		인간의 영혼. 태양상징-중앙 배치
거치문		권력, 생명, 다산	○, □ 문양		○-우주의 상징 □-수호신

[표 1] 한국과 인도 기하문양과 상징성<sup>1)</sup>

## (2) 인도의 기하문양과 상징성

15세기 이전의 직물에 나타난 기하학 문양은 단순한 것이었으나, 15세기 이후에는 이슬람의 영향으로 이지적이고 복잡한 톱니 문양이나 격자문양으로 발전되었다. 힌두교 사상에 의한 기하문의 기본적인 의미로서의 삼각형은 인간의 정신, 사각형은 물질성, 육각형은 천체를 상징한다(김명자, 1993). 삼각형으로 상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남자 성기인 링가(Linga)

1) 출처: <http://royalpattern.culturecontent.com/>  
 허균(1996). 『전통문양』, 서울: 대원사.  
 안넬리제, 페터 카일하우어(1994). 전제성 역, 『힌두교의 그림언어』. 서울: 동문선.

와 여자 성기인 요니(Yoni)의 숭배는 민속신앙에서 있어 왔으며, 삼각형의 합일은 정신과 물질, 초월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의 결합을 상징 한다(안넬리제, 1994). 랑골리(Rangoli) 문양은 남성, 여성의 원리가 영원히 합쳐진 안트라와 만달라의 민간신앙 속에서 변형되어 간단해진 형상이다. 우주의식은 복식에서 ○, □ 문양으로 표현되었으며, ○의 형태는 우주의 상징이며, □은 수호신을 상징한다. (卍)자인 스와스티카(Swastika)는 인도인들의 태양 숭배 사상의 표현이며, 고대 인도인의 우주관과 천체에 대한 인식은 복식에서 태양계를 상징하는 나브라트나(Navratna) 문양이 사용되고 있다(아게트 무케르지, 1995). 인도의 기하문양은 힌두교 사상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 많으며 영원히 불변하는 정신, 태양숭배사상, 우주를 표현하여 행운을 불러오는 문양으로 상징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종교적인 사상과 더불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줄 것이라고 믿어 직물에 그러한 염원을 문양으로 표현하였다.

## 2.2.2 동물문양(動物紋樣)

동물은 신화나 전설 속에서 상서로운 동물로 전해져 왔다 상서로운 길조가 보일 때는 상서로운 동물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조류의 의미는 자유롭게 날아 천상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신성시 하였다. 동물문양이 지닌 의미는 그 형상이나 성품에 근거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혹은 종교적인 의미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과 인도 각 나라의 전통 동물 문양 종류와 상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1) 한국의 동물문양과 상징성

동물문은 가상의 동물과 실상의 동물로 분류되는데 가상의 동물로는 용문, 봉황문이 있으며, 실상의 동물로는 학문, 편복문, 기린문, 원앙문, 거북문, 종문, 호문, 사슴문, 호접문 등이 있다. 조선전기에는 용과 봉황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왕실을 상징하는 특수한 문양으로 여겨졌으며, 후기에는 일반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소룡문, 칠보소룡문, 망룡문, 용봉문, 화봉문, 운봉문, 구봉작금, 운학용봉문, 운학문, 화학문, 접문, 배접문, 백복문, 운복문과 같이 다양한 동물문양으로 나타났다(김효형, 2006). 호문(虎紋樣)은 백수의 왕을 상징하여 잡귀를 막아 준다는 뜻이며, 삼국 시대 사신도 등에서 백호라 하여 서방의 방위 신, 길상적인 상상의 동물로 나타났다. 19세기 베갯모에도 호신의 뜻으로 이용되었다(구미래, 2004). 기린은 상서로운 동물로 신성시 되어 장식문양으로 널리 쓰였는데 용과 같이 청, 백, 적, 흑, 황

의 오색으로 표현되고 있다(박옥련, 2000). 한국의 동물문양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설화에서의 의미에 따라 염원하는 것이 차이가 있으나 인간의 궁극적 염원은 자신들을 보살펴 주는 수호신과 같은 역할로서 동물문양을 표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인도		
문양	그림	상징성	문양	그림	상징성
공작		고귀함, 권세, 관운형통	공작		불멸, 구애, 다산, 화려함, 전쟁과 보호
닭		미래 예지, 상서로움, 영리, 참을성, 신뢰, 귀신 쫓음	원숭이		신격화-힌두이즘
호랑이		권력, 무사, 용기. 잔인. 용맹	앵무새		사랑과 정열, 구혼
용		통치자, 상서로움, 잡신 물리침	뱀		신사 숭배, 사생명의 에너지, 근원적 바다, 다산
거북이		장수, 길상, 미래의 예시, 주술적, 북방 수호,	암소, 황소		땅과 하늘의 결합
기린		용렬함, 길상영수, 상서로움	코끼리		행운, 길조, 물과 다산, 귀족, 왕족의 힘
봉황		고상, 태평성대, 천황의 상징. 천생연분			

[표 2] 한국과 인도 동물문양과 상징성<sup>2)</sup>

## (2) 인도의 동물문양과 상징성

힌두교의 신들은 여러 형태의 동물로 현현한다. 동물의 형상이 신이로까지 현현하는 이유는 동물을 성스럽게 여기는 힌두이즘의 성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동물숭배에 대한 기원은 고대 인더스 문화로 거슬러 올라가며, 인도의 신화와 회화에 종종 동등한 성적 대상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신격화 된 동물문양으로는 공작, 앵무새, 물고기, 거북, 뱀, 암소, 황소, 원숭이, 사자, 사슴, 새 문양이 있으며, 숭상의 동물문양으로는 코끼리 문양이 있다. 코끼리는 사랑받는 행운의 상징이며 길조 문양으로 물과 다산, 귀족, 왕족의 힘과 연관 되었다(안넬리제, 1994). 공작새는 죄를 제거하는 상징, 물고기는 부와 어린이, 다산과 번영의 상징이다(최호정, 하지수, 2006).

인도의 동물문양은 신과 함께 출현하거나 신격화되어 표현되었으며, 상징성에는 종교적 성향이 짙으며 신화에서 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함께 인간의 염원을 담고 있다.

### 2.2.3. 식물문양(植物紋樣)

식물문양은 꽃이나 나무 등의 여러 가지 식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장식적 효과를 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 상징적 의미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생명력, 혹은 사상에 의한 인간의 기원이 담겨져 있다. 문양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모하여 도식화되어 표현되었다. 한국과 인도 각 나라의 전통 식물문양 종류와 상징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1) 한국의 식물문양과 상징성

식물문양은 꽃문양과 나무문양, 과일문양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선시대의 꽃문양 중에서는 연꽃과 모란 문양이 많이 쓰였다. 꽃문양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른 보조 문양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기물에 각종 꽃 넝쿨무늬를 장식하는데 주로 인동초 혹은 인동당초라 하여 장춘(長春)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매화(梅), 난초(蘭), 국화(菊), 대나무(竹)를 사군자라고 불리며, 이 네 가지가 초목이나 꽃 중에서도 기품 있고 고결한 군자와 같다고 붙여진 호칭이다. 난초는 사랑과 아름다움, 향기와 우아함의 대명사, 정절과 충성심의 상징(김원룡, 2000)이며, 목단은 꽃 중의 왕으로 부귀와 명예를 상징 한다(이순자, 1985). 연화는 생명의 창조, 번영을 상징하며, 매화는 미덕, 절개, 행복, 아내를 상징하였다. 또한 대나무는 남편, 절개를 상징하며 소나무는 장수, 풍류, 탈속을 상징하고 국화는 귀족을 상징하였고, 과실은 풍요와 자손의 번창함을 상징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식물문양의 상징성은 자손의 번창과 건강한 삶을 염원하는 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 출처: <http://royalpattern.culturecontent.com/> 허균(1996). 『전통문양』, 서울: 대원사.  
안넬리제, 페터 카일하우어(1994). 전제성 역, 『힌두교의 그림언어』. 서울: 동문선.

**(2) 인도의 식물문양과 상징성**

인도에서는 불교의 성립이전부터 연꽃을 신성한 식물로 생각하여 창조 의 신(神)인 브라흐만을 연으로 표현하였으며, 인도에 정착된 불교로 이어져 연꽃은 인간이 동경하는 이상향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레몬꽃과 호박꽃은 인도인들이 신에게 바치는 대표적인 봉헌물이다(Lynda Lynton, 1995). 덩굴식물이 곡선을 이루며 뻗어나가는 당초문양은 이슬람 문화를 통해 인도화 된 문양으로 사리의 테두리나 공간을 장식한다. 복식에서 연꽃문양은 생명력의 상징으로서 자궁과 탄생을 의미하며, 번영과 물질의 가치를 상징한다. 연꽃의 5개 꽃잎은 다섯 가지의 요소와 다섯 기관-촉각, 시각, 미각, 후각, 청각-의 인식을 나타낸다. 연꽃은 불교라는 종교적 매체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양으로 그 상징적 의미 또한 유사하나 인도의 경우에는 신과 더불어 표현되고 있다.

한국			인도		
문양	그림	상징성	문양	그림	상징성
매화		희망, 절개, 충절, 선비정신	레몬꽃		악으로부터 보호
국화		지조, 장수	호박꽃		추수기간의 행운과 보호
연꽃		생명, 순결, 번영	연꽃		청정, 우주, 창조, 적연화-태양 청연화-달
포도		풍요, 다산, 장수	우드락사		시바의 눈 의미
도화		번창, 장수, 삼다(다남, 다복, 다수)	나무		지혜, 풍요, 깨달음, 다산과 보호, 승고의 대상
목단		부귀, 영화, 행복			

[표 3] 한국과 인도 식물문양과 상징성<sup>3)</sup>

3) 출처: <http://royalpattern.culturecontent.com/> 허균(1996). 『전통문양』, 서울: 대원사.  
Lynda Lynton, *Op. Cit.*, 1995  
Pradumna & Rosalba Tana (2005). 『인도 전통문양』. 서울: 이종문화사.

**2.2.4. 자연문양(自然紋樣)**

자연문양은 해, 물, 구름, 번개, 달, 파도 등의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문양을 말한다. 문양의 표현은 사실적 형태를 응용하여 도식화되었다. 한국과 인도 각 나라의 전통 식물문양 종류와 상징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1) 한국의 자연문양과 상징성**

조선시대에는 물결문양이나 산수풍경문양은 매우 드물게 나타났으며, 구름모양이 많이 나타났다. 구름 문양은 고려시대 직물에도 많이 나타났지만 조선시대에도 자주 쓰이는 문양이며, 신분 상징의 의미로 중요하게 쓰여 졌다. 그 밖에 십장생의 산(山), 해(日), 월(月), 내(川), 돌(石)의 문양이 표현되었다.

구분	문양	그림	상징성
한국	운문		장수, 신비속의 풍류
	해		남성, 양(陽), 지상최고, 권위의 상징
	산		생명의 근원, 절개
	달		대지, 여성, 풍요, 흥민성쇠, 장생
	십장생		밝은 세상, 풍류, 수복, 순수, 평화, 불변
인도	페이즐리		다산, 보호
	물결무늬		몸과 마음의 정화작용

[표 4] 한국과 인도 자연문양과 상징성<sup>4)</sup>

4) 출처: <http://royalpattern.culturecontent.com/> 허균(1996). 『전통문양』, 서울: 대원사.  
인도 국립박물관(1988). 『염색과 다채로운 종교미의 세계 : 세계의 박물관 전집 19』, 국립인도박물관.

## (2) 인도의 자연문양과 상징성

숭배의 대상으로 나무의 형태는 회화, 조각, 공예, 복식에서 직물의 문양으로 표현되었다. 직물에 표현된 나무는 창조의 주축인 우주 나무, 생명의 나무, 지혜, 깨달음과 풍요, 다산과 보호를 상징한다. 생명의 나무와 식물의 꽃, 잎을 혼합한 형태도 있는데, 이를 칼가(Kalga)라 한다. 이것이 스코틀랜드의 페이즐리(Paisley) 지방에서 모방하여 제작함으로써 페이즐리 문양으로 많이 알려졌다(인도 국립박물관, 1988).

페이즐리 무늬는 카슈미르 지방의 망고 열매나 사이프러스 혹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모티프로 한 것이라는 설방울, 망고, 나뭇잎, 올챙이 등으로 기술되기도 하며 다산과 풍요함의 표현이나 생명감을 띤 나무를 뜻하기도 한다.

## 2.3. 한국과 인도 전통 문양의 비교

한국과 인도 전통 문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 2.3.1. 공통점

양국 모두 여러 유형의 문양을 사용하였으며, 단순히 장식적인 문양이 아닌 사상적인 상징성과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특징이 있다. 한국의 민속 사상을 살펴보면 한국은 자연을 숭배하는 정신이 두드러져 우주만물의 근원을 자연과 연관 지어 생각하였고, 인도는 정·부정의 개념의 근원에 있어 자연적인 것을 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조선시대에 동물문양은 문양을 통해 인간이 힘을 빌리고자 했던 벽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을 표시하는데 사용하였고, 길조를 기원하는 길상적 의미도 가지고 있어 신비한 동물의 출현과 연관 지어 나라, 집안의 길흉화복을 믿었으며, 다산, 출세, 장수, 재물, 행운, 자수성가 등의 현세주의적 기원도 하였다. 인도의 17-19세기 자연문양은 자연을 인격화시켜 숭배하여 직물의 문양으로 표현되었으며, 신화와 회화 등에 동등한 성적 대상으로 묘사되거나 인간과 혼합 형태로 표현되었다. 또한 신화에 기원한 신과 함께 동·식물 문양이 혼합문양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문양의 상징성은 주술적, 샤머니즘적, 유감주술적인 방법에서 공통성을 찾을 수 있었다.

한국의 복식에서는 자연현상의 염원(자연문), 길상벽사(용, 기린, 호랑이), 다산(포도, 석류), 수복장수(수자문, 박쥐, 근자문), 공명출세(닭, 공작), 부부화합(원앙, 기러기)등을 염원하는 것들로, 인간은 복을 기

원하고 행복해지려는 기복신앙이 문양에 표현되었다.

조선시대 여자복식에 나타난 동물문양은 권위와 소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적의에 나타난 문양은 봉황, 꿩, 용의 동물문양과 배꽃, 구름, 불, 만(卍)자 길상어문인 회(囀) 자가 표현되었고, 원삼에는 용, 봉황, 학의 금박과 석류, 화, 초의 식물문, 구름문과 파선, 길상어문으로는 복(福), 수(壽)가 표현되었다. 당의에는 박쥐가 금박되었으며, 석류, 목단, 구름문, 복(福), 수(壽) 등이 시문되었다. 스란치마에는 용과 봉황, 불노초, 당초, 포도, 국화, 구름, 복(福), 수(壽), 귀(貴)가 표현되었고 활옷의 전면에 연화, 목단, 불노초, 학, 나비 등의 장수와 길복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자수를 놓았으며, 그 위로 청, 황, 녹, 홍의 색으로 길상을 염원하는 문자를 수놓았다.(박옥련, 2000).

인도의 복식에서는 시리, 오드니에서 동물, 식물, 신의 문양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인도성과 다산의 욕구를 공작문양을 통해 나타냈고 행운과 건강은 꽃문양을 통해 나타냈다. 한국과 인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동물문양은 공작, 물고기, 거북이 문양이며, 식물문양은 연꽃, 기하문양은 지그재그 문양, 그 외 근자문 등이 있고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 2.3.2. 차이점

한국의 정신문화 형성에 영향을 준 샤머니즘은 불교, 유교와 융화 내포된 상태에 이르렀고, 어느 신앙보다 강렬하게 한국 무속 신앙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동시에 전반적인 문화 활동의 정신적 배경을 이루게 되었다. 인도는 힌두교 사상을 기반으로 철학, 생활관습, 고유한 미의식 등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실천적 의미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생활화된 사상이라 볼 수 있다. 문양의 종류에 있어서 한국은 기하문으로 회문, 뇌문, 귀갑문, 고리급문, 갈모급문, 금강저문, 결연문, 태극문, 팔괘문, 운문이 표현되었으며, 식물문양은 사군자문(매, 란, 국, 죽), 목단문, 삼다상징문(석류문, 천도문, 불수감문, 포도문), 인동, 당초문, 보상화문, 소나무가 표현되었다. 동물문양은 용문, 봉황문, 현무문, 학문, 호접문, 원앙문, 기린문, 편복문, 닭문, 공작, 기러기문, 꿩문, 잉어문이 표현되었고 길상문, 길상어문이 있다.

인도는 기하문양으로 삼각, 사각, 줄무늬 물결무늬, 체크, ○, □, 톱니무늬가 표현되었으며, 식물문양으로는 레몬꽃, 호박꽃, 루드락사, 백합, 튜립, 아이리스, 우주나무, 생명의 나무, 무화과나무가 표현되었다. 동물문양으로는 공작, 앵무새, 뱀, 코끼리, 암소, 황소, 원숭이, 사자, 말, 사슴문양이 있다. 신(神)중심

문화의 영향으로 신, 인간문양인 시누, 가네시, 크리쉬나 등이 표현되었으며 인도에서는 페이즐리 문양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공통점	차이점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삶의 근원은 자연.</li> <li>- 문양에 상징적 의미 부여.</li> <li>- 문양의 형태 차이는 있지만 공작, 물고기, 거북이, 연꽃, 지그재그, 끈자 문양 등이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인간중심.</li> <li>- 동물, 식물, 기하문, 자연문, 기하학문, 동물문, 식물문, 자연문, 길상어문: 직물의 조직 자수로 시문.</li> <li>- 의례복에는의도적인 장식문양-직접적이고 직설적인 문양.</li> <li>- 평상복은 문양을 배제, 직물의 지문(地文)으로 사용.</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경우는 신과 함께 나타남.</li> <li>- 신의 상징성을 의미하는 동,식물 문양.</li> <li>- 인도의 페이즐리 문양이 특징적.</li> <li>- 인도는 신 중심.</li> <li>- 인도문양은 신격화해서 나타남.</li> </ul>

[표 5] 한국과 인도 전통 문양의 공통점과 차이점

###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과 인도 전통 문양 형태 분석

#### 3.1.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 전통 문양

2003년 S/S 컬렉션에서는 아시아의 전통 문양과 의상을 모티브로 한 디자이너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일본, 중국풍에서 벗어나 보다 새로운 동양 이미지를 찾고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한국풍이 등장했다. 이러한 점은 2002년 월드컵 개최나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력의 급부상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부각되기 시작한 이후 그 동안 서구에 소외되었던 한국의 문화와 의복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전통 문양이 현대패션에 맞게 응용되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한국 민속 이미지의 의상에 사용된 문양들은 구름문양, 연꽃문양, 당초문양, 매화 등과 함께 목단과 인동초 등의 식물문양이 수놓아진 것과 프린트된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4대 컬렉션에서 중국풍이나 일본풍은 많이

나타난 반면 한국풍은 드물게 나타났다. [그림 1]은 2002년 F/W 엠마누엘 응가로(Emanuel Ungaro)의 의상으로 복합 식물문양을 전면 사용하였고, [그림 2]는 2003년 F/W 블루마린(Blumarine)의 한복이 서양복의 형태로 응용 되어 한복의 동정에서 보이는 깃을 비치는 시폰 소재로 넓게 하고, 그 부분에 목단 자수를 함으로써 한복의 여성스러움을 서구의 이미지로 재현하였다. 이렇듯 목단 꽃은 서양 의복에 가장 많이 재현된 식물문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은 2003년 F/W 안토니오 마라스(Antonio Marras)의 의상으로 큰 목단 자수를 한쪽의 몸판 전체에 문양으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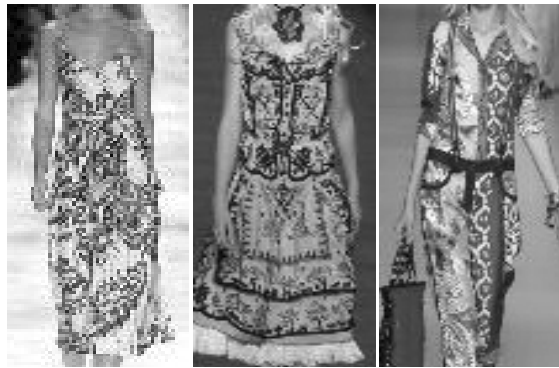
[그림 1] Ungaro 2002 F/W Paris 출처: www.firstview.com  
 [그림 2] Blumarine 2003 F/W Milano 출처: www.firstview.com  
 [그림 3] Antonio Marras 2003 F/W Milano 출처: www.firstview.com

#### 3.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인도 전통 문양

현대 패션에 있어 인도의 전통 복식과 전통 문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응용되어 오고 있으며, 현대 패션의 대표적인 주제로서 전통적 요소에 여러 현대적인 요소들이 절충되어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고대 인도의 직물에 사용되었던 문양들이 현대 패션에 도입되어 나타나는 것이 전통 패션에 나타나는 중요한 흐름 중의 하나인데 고대 인도의 직물 문양은 그 정교함과 모던함에 있어서 현대의 문양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식민지였던 탓에 가장 먼저 서구에 소개된 동양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다. 인도 전통 문양으로서 현대의 거의 모든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양은 페이즐리 문양이다. 정교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조화로 이루어진 페이즐리 문양은 현대에 다양하게 활용되어서 날염 문양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현대 패션 전통 문양의 대명사가 되었고, 다양하게 변형되어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림 4]는 2005년 S/S 드리스 반 노트의 의상으로 페이즐리 문양의 란제리풍 원피스이며, [그림 5]는 2005년 S/S 안나 수이의 투피스 드레스로서 상의의 탑 형태와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듯한 생명의 나무와 사슴과 같은 동물을 스커트 전면에 문양으로 한 스커트와 페티코트를 착용하여 이국적이면서도 귀여운 여성미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6]은 2006년 S/S에 전통 문양 이미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인 에트로가 발표한 의상이다. 화려한 색채의 페이즐리를 비롯한 연꽃, 당초 문양을 배합함으로써 색다른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그림 4] Dries Van Noten 2005 S/S Paris 출처: www.sam sungdesign.net  
 [그림 5] Anna Sui 2005 S/S New York 출처: www.sam sungdesign.net  
 [그림 6] Etro 2006 S/S Milano 출처: www.sam sungdesign.net

#### 4. 결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으며 더불어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져 가고 세계 4대 컬렉션에서도 서구 복식과 문양에서 아시아 전통복식과 전통 문양으로 관심을 돌려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외래의 수많은 침입에도 불구하고 타 문화를 함께 수용하면서도 자국의 독자적인 창조성과 전통을 지켜온 인도의 전통 문양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상징성을 알아보고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과 인도의 전통 문양을 조사해 보았다. 따라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한국과 인도의 전통 문양에 나타난 사상성은 자연과 인간의 복된 삶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문양을 사용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또한 한국은 그 사상의 근원이 인간 중심적 이었으며, 인도는 신 중심

적이라는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한 국		인 도	
문 양	그 림	문 양	그 림
기하 문양- 뇌문, 원	 Etro 2003 F/W Milano	기하 문양- 외문	 Etro 2000 S/S Milano
동물 문양- 용	 Blumarine 2003 F/W. Milano	동물 문양- 백	 Dries Van Noten 2005 S/S. Paris
식물 문양- 목단	 Antonio Marras 2005 F/W. Milano	식물 문양- 식물문 양 변형	 Dries Van Noten 2003 S/S. Paris
자연 문양- 구름	 Rifat Ozbek 2004 F/W. Milano	자연 문양- 페이 즐리	 Blugirl 2002 F/W Milano

[표 6]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과 인도 전통 문양  
출처: www.firstview.com

둘째, 한국과 인도의 전통 문양의 형태에 있어 차이는 있었지만 동물문양은 공작, 물고기, 거북이 문양 식물문양은 연꽃, 기하 문양은 지그재그 문양, 그 외 근자 문양 등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복합적인

문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대 패션에 표출된 한국과 인도의 전통 문양을 2000- 2006년까지 열렸던 세계 4대 컬렉션 자료를 통해 [표 6]은 4대 컬렉션에 나타난 기하문양, 동물 문양, 식물문양, 자연문양을 한국과 인도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사진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 정확한 문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둘째 현대 패션에 표출된 한국 전통 문양이 외국 패션 디자이너에 의해 재해석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객관적 판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세계 4대 컬렉션에서 여러 나라의 전통 복식과 전통 문양이 현대적으로 재해석 되어 나타났지만, 아프리카, 인도, 중국, 일본, 남미에 비해 한국의 전통 복식과 전통 문양에 대한 자료는 적었으며, 전통 문양보다는 전통 복식의 형태나 색채를 응용한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서구의 현대 패션에서 표출된 한국 전통 문양은 드물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인도 전통 문양은 오랜 시간 동안 패션에 반영되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반영되고 있는 소재로 특히 자연문양인 페이지즐리 문양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 또한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한국 이미지의 한 부분인 전통 문양을 중국, 일본의 전통 문양과 비교할 때 차별화된 한국의 이미지를 표현 할 수 있는 다양한 전통 문양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 요소로 전통 문양이 현대 디자인에 있어 여러 곳에 응용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에 쓰이는 전통 문양 뿐 아니라 더 많은 전통 문양과 문양에 미친 요인 및 상징성을 고찰하고 더 많은 표현 방법으로 다양하게 재해석 되어지는 디자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난희 (2006). 「현대 패션에 표출된 한국과 인도의 에스닉 직물 문양 이미지 비교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화포털 (2012.2.20), <http://www.culture.go.kr/pattern/service/aboutPattern.do>.
- 김덕겸 (2001). 『한국 길상문』, 서울: 형설출판사.
- 허균 (1995). 『전통문양』, 서울: 대원사.
- 오근재 (2001). 『한국문양의 전개』, 서울: 미진사.
- 임영주 (1998). 『한국의 전통문양』, 서울: 대원사
- 최혜정 (1989).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문양과 상징성에 관한 소고. 『한국복식학회』, 13(2), 51-53.
- 김명자 (1993). 「인도 사라스 염색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넬리제, 페터 카일하우어(1994). 전채성 역, 『힌두교의 그림언어』. 서울: 동문선. 51
- 아게트 무게르지(1995). 최병식 역, 『인도 종교미술』, 서울: 동문선.
- 김효형 (2006). 『우리나라 전통 무늬 직물』,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9
- 이순자 (1985). 목단문양에 대한 소고 -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9.
- Lynda Lyntion (1995). *The Sari*,(London: Thames and Hudson).
- 인도 국립박물관 (1988). 『염색과 다채로운 종교 미의 세계: 세계의 박물관 전집 19』, 서울: 한국일보사.
- 박옥련 (2000). 『한국 전통복식 문양사』, 서울: 형설 출판사.
- 임영주 (1998). 『한국문양사』, 서울: 미진사
- 구미래 (2004). 『한국인의 상징체계』, 서울: 교보문고, 252-264.
- 최호정, 하지수 (2006). 21세기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 직물 디자인. 『한국복식학회』 56(7), 134-147.
- 스타일. (2012.3.10), <http://www.style.co.kr/collection>
- 온 컬렉션. (2012. 2.15), <http://www.oncollection.wef.co.kr/collection/world/>
- www.firstview.com